

# 자녀 일상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과 자녀의 적응

옥 경 희(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어머니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는 아동들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어머니의 탐색과 통제 그리고 자녀들의 보고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아는 정도나 이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자녀들의 학업적응, 학교생활적응과 교우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또한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687명(남 : 343, 녀 : 344), 5학년 학생들 670명(남 : 322, 녀 : 348)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815명(남 : 391, 녀 : 424)로 구성되었다. 우선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과 탐색과 통제 그리고 자녀의 보고와 학교생활적응,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 및 성적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 어머니의 탐색 및 통제와 자녀의 보고와 학교생활적응,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는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자녀의 보고와 어머니의 통제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교사와의 관계 및 성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와 알아내는 방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보고하고 어머니의 통제는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과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업적응을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지식이 유의하였으나 고학년 특히 여아의 학업적응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과 지식을 알게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자녀의 보고, 어머니의 탐색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보다는 어머니의 지식이 더 강한 예측력을 지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지식보다는 자녀의 보고가 자녀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탐색은 극히 일부분에서만 자녀의 학업성적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어머니의 통제는 초등학교 5학년 남아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으나 중학교 1학년 여아의 교우관계는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